

VAN事業의 展開 方向

禹 勝 戌

(한국통신 부가통신사업국장)

■ 차

례 ■

① 머리말	나. IP 支援育成
② VAN 事業環境	다. 端末機普及
가. 事業制度	⑤ 公益 VAN 事業 推進計劃
나. 市場與件	가. 비디오텍스
③ VAN 事業의 特性	나. 學習情報DB
가. 顧客指向의 서비스	다. FAX-net 구축과 FAX-VAN
나. 소프트웨어 중심의 서비스	라. 音聲VAN
다. 서비스속성의 다양성	마. E-Mail
④ VAN 事業 育成對策	⑥ 맺는말
가. 情報通信網의 擴張	

① 머리말

먼저 옷 이야기를 하겠다. 계절이 바뀔때마다 옷 걱정을 해본 경험은 더러 있을 것이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기성복은 마춤복과 비교하여 값이 싼 대신 질이 다소 못하다고 생각되었으나 요즘에 와서는 기성복이라고 해도 몸에 잘 맞을 뿐만 아니라 품질도 좋아서 굿이 번거롭게 맞춤복을 고집할 필요도 없게되었는데 한가지 험은 가격이 너무나 비싸다는 점이 아닌가 한다.

옷의 가격은 百貨店이나 메이커의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소위 正品價格이 있지만은 在庫品에 대해서는 무더기로 쌓아 놓고 대폭 割引해서 판매하는 割引價格도 있다. 문제는 출고후 일정 기간동안 팔리지 않은 옷은 상실할인 매장을 통하여 헐값에 처분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需要를 잘못 판단하여 제품을 過剩生産했거나 디자인이나 색상이 소비자의 기호에 맞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으며 헐값의 재고처분도 어찌면 기업이 결심할 수 있는 전략임에는 틀림 없으나 결국은 정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높은 옷값을 치르게 하는 원인이 된다.

베네통이라는 유명한 기성복메이커가 우리나라 시장에도 진출하였다. 베네통은 세련된 디자인과 다양한 색상,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기성복 시장을 공략하는데 소비자가 찾는 색상, 디자인, 치수 등을 생산라인으로 수일이내에 피드백함으로써 세계의 기성복시장을 주름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衣類 輸出大國으로 성장해 왔으나 국제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베네통의 사례를 깊이 새겨

보지 않으면 안될것 같다.

오늘날 企業을 경영하는데는 사람, 자본, 기술 외에도 情報利用技術이 중요한 經營要素로 인식된다.

情報를 잘 이용하지 않고서는 競爭市場에서 밀려나고 말것이기 때문이다. 비단 企業뿐만 아니라 한 나라도 情報化에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 성장발전의 우열이 가려질 것으로서 일찌기 선진 각국에서는 후기 산업사회 다음에는 高度情報化 社會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情報産業을 國家 戰略産業으로 육성시켜 가고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를 일찌기 파악하고 나름대로의 情報産業育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情報産業은 아직도 뿌리가 내리지 않은 묘목과 같은 상태로서 이에 대한 적절한 育成政策과 實行計劃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필자가 평소 느낀 생각과 또 通信産業育成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관련 사업계획을 소개드리고자 한다.

[2] VAN 事業環境

가. 事業制度

電氣通信事業에 관한 制度는 나라마다 다르나 附加通信事業은 民間事業者에게 開放하고 있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이다. 왜냐하면 附加通信事業은 電信電話事業과는 달리 전국적인 通信網設備를 갖추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이 일부 特定集團에 국한되어 民間企業이 小規模 資本과 創意를 바탕으로 순발력있게 사업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규모가 큰 公衆通信事業體가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이용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附加通信事業에 관련된 제도는 지난 '85년의 제1차 회선사용 자유화조치로 부터 유래되는데 '89년까지 4차례의 회선사용규제

완화조치를 취하면서 그룹 VAN과 특례 VAN 사업이 허용되었다. 특히 '90년 10월에 개정된 電氣通信事業法 施行令에 의하여 VAN사업자에게 TI급 多衆化裝置 및 패킷교환기 사용이 허용됨으로서 附加通信網構築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종전까지 체신부장관의 承認을 받아야 했던 모든 情報通信役務提供業중 단순 DB, DP는 자유화되고 축적전송, 처리전송 등의 附加通信서비스는 登錄制로 전환되었다. 개정된 制度하에서 民間業體가 VAN사업에 진출함에 있어서 制度的 障壁은 거의 없다고 본다. 다만 국제 VAN서비스는 아직도 금지되어 있는데 이는 우르과이라운드 협상결과와 한·미통신회담의 진척에 따라 開放時期과 開放의 範圍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 이번의 제도 보완은 국내 情報通信市場 활성화에 커다란 진전을 보인 것이며 앞으로 電氣通信事業法을 개정할 때 현행 情報通信役務提供業은 附加通信事業으로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나. 市場與件

情報通信役務提供業은 목적에 따라 ①自體使用, ②共同使用, ③他人使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自體使用이라 하면 기업체가 국가기관이 필요한 정보통신 시설을 갖추고 이를 업무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비영리목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共同使用은 그룹 VAN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系列企業 상호간이나 동일한 업무를 하는 기업 상호간의 업무효율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서 대개 비영리 사업으로 운영된다. 他人使用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댓가를 받아서 사업을 운영해야 함으로서 영리목적으로 운영될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附加通信 또는 情報通信서비스는 주로 自體使用내지는 共同使用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他人使用서비스가 있기는 해도 이용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무료로 시범서비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90년10월까지 승인된 情報通信役務提供者 수는 DB, DP분야 154개 업체를 비롯하여 특례 VAN 21개업체, 그룹VAN 14개업체가 되며 개정

된 事業法施行令에 따라 登録業體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제3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市場與件이 조성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情報通信事業은 미래의 高度成長産業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반면 현실적으로는 市場與件이 그러하지 못하다.

미국은 혹시 한국의 情報通信市場을 황금시장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음까? 그렇지 않고서야 왜 하필이면 '88년도에 통과된 미국의 종합무역법을 앞세워 한국과 EC를 통신분야 優先協商對象國(PFC)으로 지정하였겠는가? 그것도 단일 국가로서는 유일하게 한국을 지정했다는 사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한·미통신회담시에 이 문제에 대하여 미국측의 견해가 어떤가에 대하여 물어 보았다. 답변은 한국이 지난 수년동안 비약적인 통신시설확충이 이루어져서 그 성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基本通信施設인 電話網의 확대를 두고 한 것으로 보이나 막상 情報通信서비스부분은 아직도 시장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미 많은 업체들이 情報通信役務提供業을 하겠다고 참여하고 있으나 附加通信서비스를 통하여 사업수지를 확보할 수 있기 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VAN事業의 特性

가. 顧客指向의 서비스

전기통신서비스중 전화는 남여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국민이면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이다.

그러나 附加通信서비스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特定 顧客集團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서 이용대상자가 한정된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를 개발 보급하고자 할 때에는 利用階層이 누구인가 부터 정확히 알지 않으면 需要發掘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더욱 어려운 점은 附加通信서비스가 정형화된 팩키지형태가 아니라

고객의 요구를 받아서 고객과 서비스제공자가 함께 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어떠한 企業體가 EDI를 도입하겠다고 할 때 노력은 어떤 용량으로 몇개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구간별 소요회선수는 얼마인가, 터미널은 몇대이며 일·출력전표의 양식은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인가 등에 관하여 고객과 더불어 확정시켜나 가야 한다. VAN사업자는 EDI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만 갖추고 있을 따름이지 고객이 필요로 하는 네트워크구축은 고객의 요구를 파악한 뒤에 할 수 있다.

나. 소프트웨어 중심의 서비스

附加通信서비스는 公衆通信事業者로부터 통신회선 및 교환설비 일부를 임차하여 컴퓨터시스템을 연결함으로써 高度의 통신서비스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通信處理, 情報處理 등의 서비스는 결국 소프트웨어기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고객의 욕구는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욕구가 생겨나기도 하고 서비스 기능도 다양화되어 나가는 것인데 소프트웨어 기술없이 이를 지원할 수 없다. 사실 EDI와 같은 시스템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하드웨어의 비중은 전체 가격의 10% 선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소프트웨어 가격이 차지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큰 사업이다.

다. 서비스속성의 다양성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부가통신서비스가 顧客指向의이란 것은 서비스 형태가 다양하다는 뜻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

그럼 1에서 여러가지 VAN서비스에 대한 속성을 보였는데 通信形서비스를 기본으로 공중서비스지향적인 때를 開放的 VAN서비스로 성격지을 수 있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기업형, 응용형서비스는 閉鎖的 VAN으로 분류된다.

개방형서비스는 서비스 利用階層의 폭이 넓고 시스템의 규모가 커야하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에 비교적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서비스판매에 의한 수입은 크게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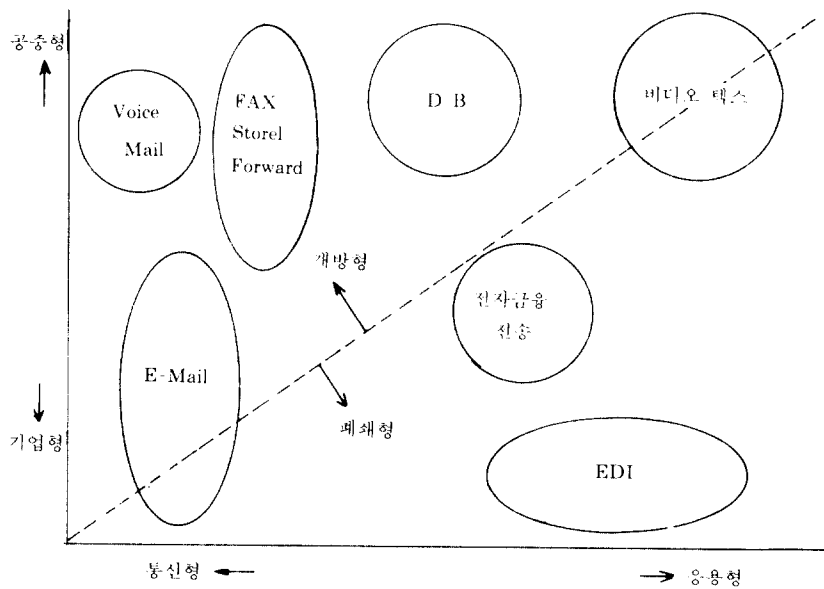


그림 1. VAN서비스 유형

주로 公衆通信事業者가 담당하는 것이 국가전체의 정보화 촉진에 효과적이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에는 DBP가 의무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閉鎖型서비스는 고도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서비스로서 주로 企業體通信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한다. 開放型서비스보다는 적은 자본으로 사업전개가 가능하고 수입확보가 용이하여 민간 VAN사업자가 진출하기에 적합한 사업분야로 볼 수 있다.

4. VAN事業 育成對策

VAN사업은 顧客, 通信網, 컴퓨터, 情報 등의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는 가입자측에는 端末機가 있어야 하고, 유익한 정보가 수록된 DB가 있어야 하며, 이들 사이를 연결하는 通信網이 필요하다.

특히 정보를 蒐集, 加工, 處理, 提供하는 情報提供者 내지는 데이터 사업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VAN사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각 부문의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고르게 육성시켜 나가야만 한다. 그림 2에 加入者로 부터 情報提供者에 이르기까지의 VAN 사업구도를 보였으며 각 부분별 육성대책을 통신공사의 계획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가. 情報通信網의 擴張

VAN사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장 수요여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확보되어야 하는 것은 通信網의 基盤構造다.

운반해야 할 화물이 있어도 도로가 없으면 수송이 불가능 한것 처럼 情報를 실어 나를 通信網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은 크게 전용회선과 패킷교환망 그리고 고속회선교환망으로 생각할 수 있다.

(1) 專用回線의 디지털화

지금까지는 아날로그 회선이 주로 공급되었으나 최근 VAN사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56Kb/s 급의 디지털 전용회선수요가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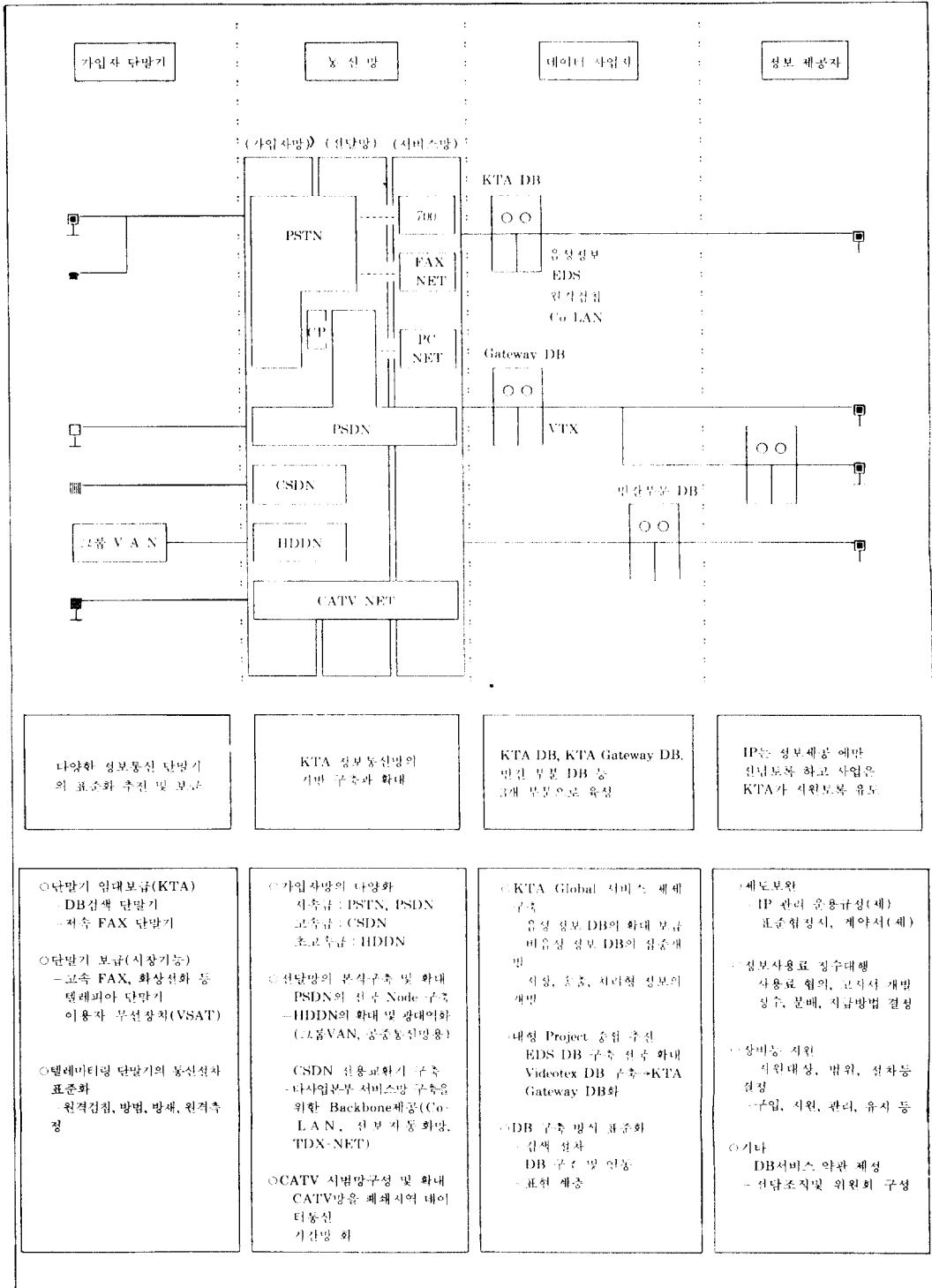


그림 2. VAN事業構圖

專用回線은 附加通信事業의 原料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다.

原料의 品質이 좋아야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고 가격도 낮출 수 있게 된다. 그래서 專用回線의 品質을 개선하고 다양한 속도의 상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專用回線에 대한 디지털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주요 도시마다 DCS(Digital Cross-Connection System)장비를 설치하여 고속디지털 데이터 회선망(HDDN : High-Speed Digital Data Network)을 구축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이 망이 구축되면 56Kb/s이외에 128, 384, 1544Kb/s 등의 다양한 傳送速度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회선구성 시간을 대폭 줄이고 고장시 신속한 절체가 가능하게 된다. 專用回線의 品質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구간은 최종 加入者 線路部分에 있다.

電話局으로부터 加入者까지는 구리선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專用回線을 많이 사용하는 전산센터나 대형빌딩등에는 광케이블 또는 디지털 마이크로웨이브시설을 설치토록하여 정보유통을 더욱 원활히 할 계획이다.

(2) 패킷교환망 구축

패킷교환망은 지금까지 데이콤이 獨占적으로 구축운용에 왔으나 '90.10부터 民間 事業者도 구축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고 通信公社에서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通信公社에서는 현재 電話網을 통한 정보 유통상의 문제점(時分制 적용, 長距離 通信料金 負擔, 통신량 증가로 인한 電話疏通障礙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패킷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91년도에는 서울, 대구, 대전, 광주지역에 패킷노드를 설치하고 수원, 마산, 전주 등 전국 22개 중·소도시지역에 패킷집중장치를 설치한 뒤 '95년까지 전국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 패킷망은 각종 데이터베이스, E-Mail, 비디오텍스 등의 액세스망으로 활용되어 전국 어디서나 均一料金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情報利用의 地域間 隔差解消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민간 VAN업체에게도 패킷망 설치는 허용되

었으나 소규모 VAN업체라면 자체망 구축이전에 通信公社패킷망을 이용한 VAN사업 진출도 初期 投資費를 줄이는데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3) 高速回線交換網(CSDN)構築

高速回線交換網은 구조나 원리상 전화와 다름이 없으나 end-to-end간에 56Kb/s의 情報傳送이 가능한 디지털 통신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88년부터 No.4 市外交換機를 이용한 CSDN 試驗運用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전화 트래픽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하여 No.4 ESS의 收容能力 한계에 육박하고 있다. 따라서 市外交換機를 이용하려던 창조 방침을 바꾸어서 디지털 시내교환기인 TDX-1교환기에 CSDN 기능을 실현하도록 현재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이 연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91년에는 우선 大都市地域에는 56Kb/s 回線交換서비스가 제공될 것이고 연차적으로 지역확대도 이루어질 것이다. 回線交換 서비스는 專用回線을 쓸 정도의 통신량은 아니면서 여러 지점과 정보를 고속으로 전송하려는 경우에 효율적인 통신 수단이다. 이상에서 情報通信網 基盤施設 확충계획을 소개하였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ISDN이다. 현재는 부분별로 통신망이 확장되고 있으나 중국에 가서는 하나의 情報通信網으로 통합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91년부터 ISDN 시험운용에 들어가서 '94년 이후에는 상용서비스를 실현한다는 목표로 ISDN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나. IP支援育成

通信網이 잘 갖추어 졌다고 해도 여기에 흘러 다닐 정보가 있어야 한다. 情報를 蒐集 加工하여 이용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바로 IP의 역할이다. 이는 정보산업의 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부끄럽게도 우리나라에서 IP란 개념조차도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른바 情報化先進國이라고 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이 분야가 대단히 活性化되어 있는 실정이다. 情報化社會를 위해서는 시급히 육성해야 할 부분이 IP인데 우선 '96년까지 IP

를 700개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정책목표하에 통신공사에서는 공익성 IP 200개를 발굴하여 이들에게 총 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들이 개발한 정보는 전량 通信公社의 DB에 수록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IP육성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유망IP선정과 지원 등에 면전을 기할 것이다.

다. 端末機 普及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는 端末機의 보급 또한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다. 최근 PC의 보급률이 타고 일반가정에도 많은 수의 PC가 보급되고 있는 것은 정보화 사회로의 진전과 내면화 긍정적인 현상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자의 발생적 수요에 의존해서는 정보화 사회의 도래는 늦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情報檢索 端末機를 조속히 보급하기 위하여 통신공사에서는 '90년에 端末機의 基本規格을 확정하고 내년부터는 低價格으로 일반가정에 대어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2000년까지 PC천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通信公社에서는 이러한 政府政策의 일환으로 '96년까지 情報檢索用 端末機 300만대를 '91년 부터 연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5) 公益 VAN事業 推進計劃

公衆通信事業者인 通信公社는 VAN사업육성을 위하여 앞장에서 소개한 基盤助成事業들을 추진하는 한편, 비교적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으면서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고 國家의 情報産業育成에 큰 波及效果를 거둘 수 있는 분야에 대하여 公益次元에서 VAN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민간업체에서 간혹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通信公社의 임장은 민간 VAN업체의 事業領域을 잠식하려는 것이 아니라 VAN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을 이기회를 통하여 강조하고 싶다.

가. 비디오텍스

비디오텍스는 지금까지 여러 나라에서 앞다투어 착수했으나 성공한 나라는 오직 프랑스의 텔레텔뿐이다. 프랑스는 현재 500만대 이상의 미니텔 端末機를 보급하고 가장 활발한 비디오텍스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가 성공할 수 있게 된 배경은 端末機 普及政策에서 찾을 수 있다.

電話番號情報를 텔레텔에 수용하고 일반가정에 電話番號簿 대신 미니텔 端末機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한편 수많은 종류의 IP를 발굴해서 텔레텔에 연결시킴으로써 端末機 普及과 IP육성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이고 Transpack이라는 패킷망의 구축도 이 사업을 成功的으로 연결시킨 데 큰 몫을 했다.

이 분야에 후발국인 우리나라도 이러한 프랑스의 성공사례를 가늠삼아 추진해 보려고 한다.

通信公社에서는 앞서 말한 情報檢索 端末機의 低價供給을 추진하는 한편 비디오텍스용 關門施設을 설치하여 사실 DB가 많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91년에는 비디오텍스 基本機能開發을 원장하고 DB構造 및 檢索方法을 標準化 하는 한편 電子電話番號서비스와 醫療情報, 農漁村情報, 科學技術情報등의 公益情報를 수용하여 비디오텍스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나. 學習情報 DB

學習資料를 DB화하여 가정에 있는 PC를 진화방에 연결, 학생 스스로가 자기 능력에 알맞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89년부터 韓國教育開發院에 의뢰하여 일부 몇몇과목에 대한 시험개발에 성공하였다.

앞으로는 보다 쉽게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Authoring Tool을 개발하여 民間人도 각종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通信公社의 학습 DB에 수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하여 아직은 실험실 수준에 있는 CAI, CMI 분야의 産業化를 추진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컴퓨터이용의 生活化를 도모하여 미래 情報化社會의

主役으로 성장시키는데 기여 할 것이다.

다. FAX-net 구축과 FAX-VAN

FAX-net은 팩스메세지를 蓄積傳送할 수 있는 대형 컴퓨터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5대 직할도시에 노드를 설치하여 '91년 하반기에 서비스가 개시될 것이다. FAX-net의 蓄積傳送技能을 잘 이용하면 民間業界에서는 FAX-VAN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事業展開가 가능하다. 서류 한장을 수백 수신처로 보낼 때 지금은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송신을 해야 한다. 물론 팩스 단말기에 번호를 메모리 해 두었다가 보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 하나의 수신처를 端末機가 순차적으로 걸어 나가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FAX-net은 노드에서 수집, 수백 수신처에 동시에 메세지를 전달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활용한다면 예를 들어 氣象資料를 입수해서 건설업체, 음료수 생산업체, 선박, 수산업체 등의 氣象情報 需要者에게 동시에 보낼 수 있다. 그외에도 入札情報, 不動産情報, 고급 證券情報, 受験情報 등을 많은 수신처에 전송할 수 있게되어 사무실 없이도 가정에서 FAX 端末機 하나만 갖추고 FAX-VAN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FAX-net은 '92년에 중소도이지역으로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며, 통신료도 전화망을 이용할때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하는 한편 심야에 전송할 때는 더욱 싼 요금으로 보낼 수 있게 하여 팩스 이용의 대중화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라. 音聲 VAN

정보를 음성형태로 얻을 수 있다면 매우 편리한 것이다. 다만 귀로 듣는 정보는 내용이 간단해야 하고 기록이 안된다는 난점도 있으나 전화가 1,500만대 이상 공급된 현실을 감안한다면 음성형태의 정보서비스도 市場性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90년 2월부터 서울과 부산에 오디오텍스라는 音聲情報시스템을 도입하여 文化行使, 레저, 스포츠, 農水産物時勢 등의 정보를 음성으로 검색 청취하도록 했다.

그동안의 이용성도가 매우 좋아서 '90년10월에는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전주, 지역에도 확대하였고 '91년에는 전국 53개 시급 지역까지 音聲情報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정보의 내용도 다양화 시켜나갈 계획이다. 제공가능한 정보는 救人情報, 證券情報, 不動産情報, 圖書情報, 鐵道情報, 健康情報, 育兒情報 등 생활에 필요한 것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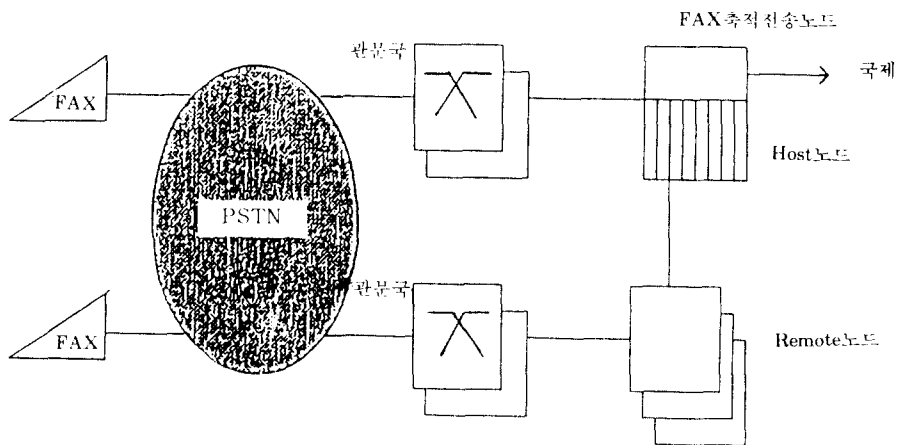


그림 3. FAX-net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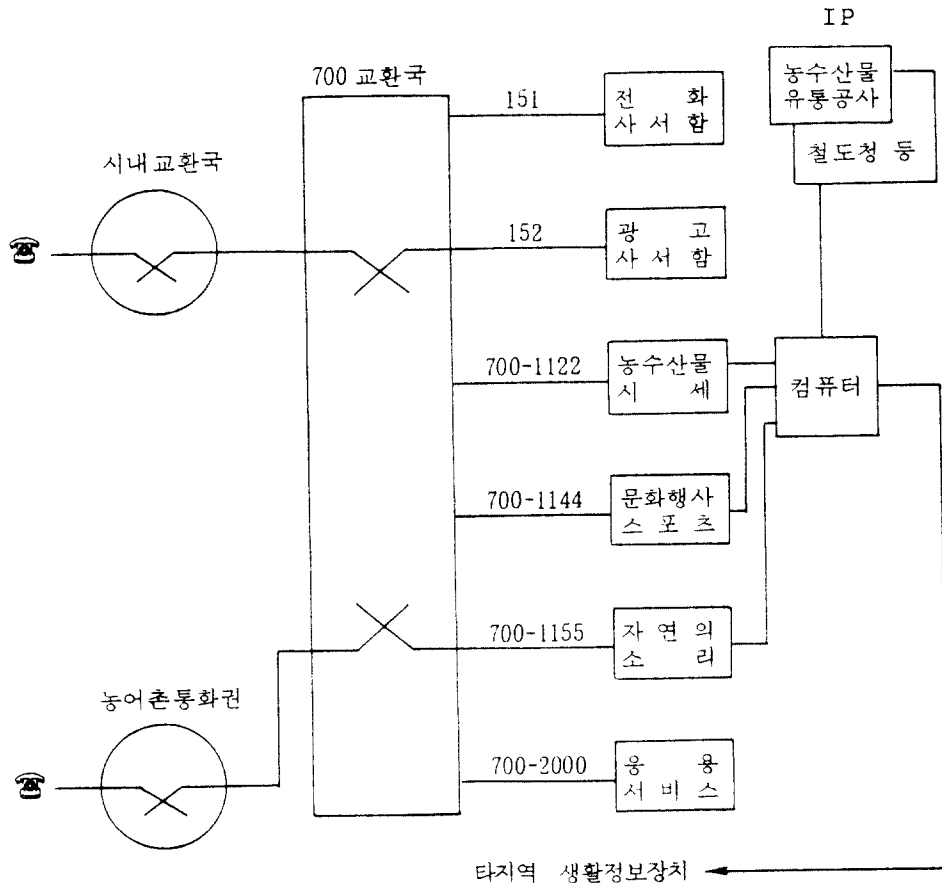


그림 4. 음성정보 방구정보

무엇이나 가능하다. 음성정보를 가지고 있는 IP는 通信公社의 시설에 정보를 넣어주고 그 댓가로 情報提供料를 받을 수 있다. 현재 農水産物情報는 農水産物 流通公社에서, 鐵道情報는 鐵道廳에서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고 문화행사, 레저, 스포츠 등의 정보는 韓國生活情報銀行에서 유상공급하고 있다.

마. E-Mail

PC의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한편, 모뎀을 내장한 通信型 PC의 이용이 보편화 됨에 따라 PC端末機를 이용한 E-Mail서비스가 서서히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키보드로 문화에 익숙한 미국, 유럽각국에서는 E-Mail이 팩스통신에 버금가는 문서 통신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머지 않아 E-Mail 이용자가 크게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 E-mail은 현재 국내에서도 데이콤배 일 400을 비롯해서 KETEL 등 사설 E-mail이 다수 있으나 通信公社에서는 앞으로 사설 E-Mail 시스템 상호간이나 국제간의 中斷 노드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E-mail을 개발하여 '90.11~12간 시험운용을 하고 있다. 내년에는 서울, 부산지역에 각 1개 시스템을 설치하여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시범서비스가 끝나는 '92.7부터는 본격 상용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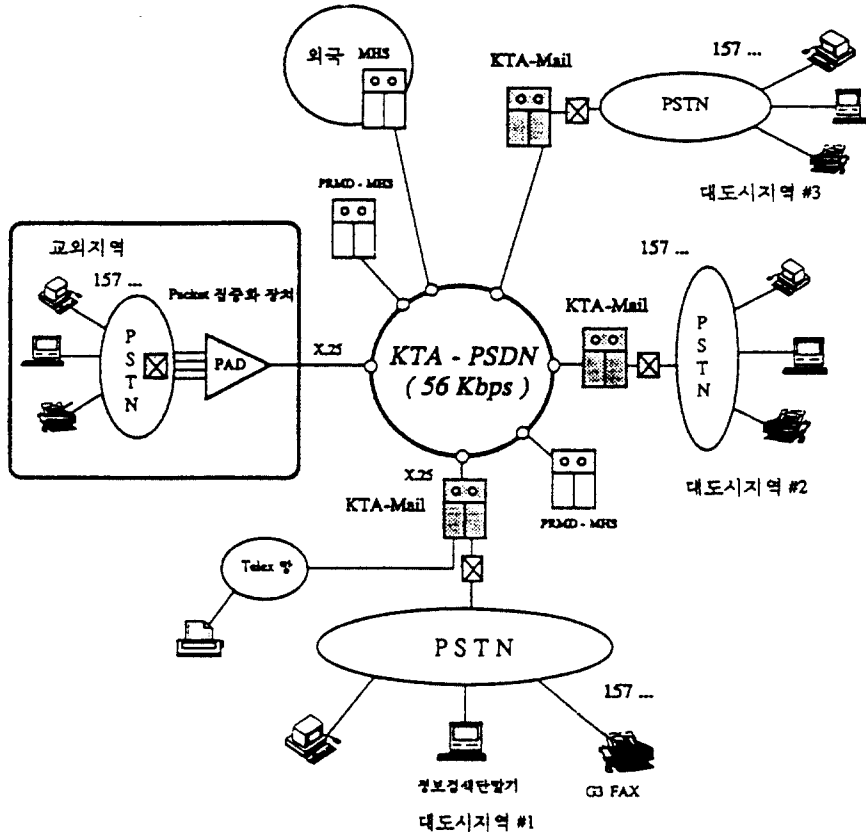


그림 5. E-Mail 망구성도

앞으로 상용화시에는 패킷망을 통하여 연결이 되도록하여 關門番號 157을 돌리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요금으로 접속이 가능하게 된다. 용량은 시스템당 1만 가입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서울, 대구, 광주 3개 지역에 노드를 설치하고 통신량에 따라 노드 설치지역을 늘려갈 계획이다.

[6] 맺는말

이상에서 두서 없이 여러가지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요약한다면 우리나라가 2000년대의 高度情報化社會로 낙오 없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情報通信産業을 國家戰略産業으로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는 전제하에 현재로서는 열악한 국내 정보통신 시장의 사업여건 조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附加通信事業에 관한 제도적 개혁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나 VAN 사업은 아직 초보적 단계에 불과하다.

외국기업은 한국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데 국내 VAN사업체가 조속히 자리를 잡아서 유망한 VAN사업분야를 일구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公衆電氣通信事業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電氣通信公社에서는 通信網의 基盤施設을 조속히 확충하고 公益 VAN事業을 추진하여 情報利用의 大衆化 實現과 다양한 IP가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端末機를 2000년까지 1,000만대 이상 보급시켜 1가정 1달말시대를 실현함으로써 情報

産業이 정착되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大衆性
 情報의 개발은 주로 電氣通信公社가 公益的 次元
 에서 추진함이 바람직하며, 民間 企業은 特定階
 層集團을 대상으로 한 VAN사업을 重點推進하여
 야 하겠다.

情報通信手段을 적절히 이용하지 않고서는
 국제 경쟁에서 이길 수 없게된다. 우리나라 산업
 의 國際競爭力 확보를 위해서 VAN사업은 조속
 히 활성화되어야 하겠다.



禹 勝 成

시차역력

- 1966년 9월 14일생
- 동이대학교 전지공학과
- 연인대학교 산업대학원 전자학과
- 전기통신기술사
- 1974년 가동고등학교 5.선석
- 1978년 과학기술사 근무
- 1979~1981년 세신부 근무
- 1982년~ 한국전기통신공사 근무
 분서 기술개발실 계획과 과장
 금산위성통신지구국장
 부커통신사업 국장